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그릿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지재훈¹, 허성은^{2*}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¹, 신라대학교 보건복지대학 치위생학과 교수^{2*}

Mediating Effect of Career Identity and Career Determination Self-efficacy in Relationship Between Gri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Dental Hygiene

Jae-Hoon Ji¹, Seong-Eun Heo^{2*}

¹Professor,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Inje University

²Professor, Dental Hygiene department at College of Health and Welfare, Silla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그릿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이중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과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B 지역 내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설문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SPSS와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진로정체감이었고, 그릿,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순이었다. 경로분석을 통해 그릿은 진로정체감을 매개로, 그릿은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을 위하여 그릿과 진로정체감을 높여야 함을 시사하므로,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진로 교육 콘텐츠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주제어 : 그릿, 진로준비행동,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매개효과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grasp the causal relationship, focusing on the double mediating effect of career identity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Data were collected by a self-entry method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 for dental hygiene student in area B. And it was analyzed using SPSS and Process Macro. The biggest factor directly influenci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 was career identity, followed by grit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Through path analysis, grit indirectly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rough the mediating sense of career identity and the sense of career identity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This suggests that grit and career identity should be enhanced for activ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o it is intend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career education contents development for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dental hygiene.

Key Words : Grit,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areer identity, Career-decision self-efficiency, Mediating effect

*Corresponding Author : Seong-Eun Heo(gitjddms0928@naver.com)

Received April 15, 2021

Revised May 18, 2021

Accepted June 20, 2021

Published June 28, 202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 시기는 사회로 나가기 위해 진로와 관련하여 자신과 외부 환경을 탐색하고 준비하는 기간으로 취업과 직업 선택의 중요한 시기이다[1]. 그러나 최근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과 심각한 취업난은 진로 및 취업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하고 있는 현실이다[2]. 교육부의 2019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에 따르면 2018년에 비해 0.6% 감소한 67.1%의 취업률을 보고하고 있으며[3], 2019년 잡코리아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진로를 명확하게 결정하여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단 20.4%에 그쳐, 대학생의 64.4%가 자신의 취업과 진로에 대한 불안한 현실을 보고하였다[4]. 이는 COVID 19의 장기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와 함께 대학 졸업생의 취업 전망이 더욱 비관적일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5-6], 앞으로의 취업 시장은 이직에 따른 비용 감소를 위해 더욱 끈기 있고 성실한 인재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바뀌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7]. 이에 대학생의 진로 준비와 관련한 개인의 끈기와 열정에 해당하는 행동적 요인이 대학생의 고용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취업을 위해 준비하거나 고용상태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그것에 주목하고자 한다[2]. 그것은 개인이 설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과 열정에 대한 장기적 지속 능력에 대한 개념이다[2]. 이는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어 그것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됨에 따라[8], 높은 그것을 가진 학생이 대학 기간 진로와 관련한 개인의 장기적 목표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으로 판단된다[2]. 이와 관련하여 대학생의 취업 준비 기간에 따른 취업자 비중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3], 대학을 졸업하기 전부터 꾸준히 준비했던 학생의 취업률이 35.8%로 가장 높았으며, 졸업 후 3개월 이내 25.9%, 6개월 이내 15.1%, 10개월 이상 취업을 준비했던 학생의 취업률이 8.9% 순으로 나타나 대학생활 기간에 진로와 관련한 준비가 취업에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본다. 또한, 향후 취업 시장에서 선호하는 인재 역시 성실함과 끈기로 이직 없이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7],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목표를 세우고 방향을 바꾸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그것은 취업 후 일자리 이동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2]. 이에 2018년 대학 졸업자의 주된 일자리 이동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결과[3], 대학의 7개 전공 계열 중 치위생(학)과가 속하는 의약계열이 22.2%로 예체능 계열 23.4%, 교육계열 22.9%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 이직 등의 이유로 주된 일자리의 이동이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게다가 COVID 19의 장기적 지속상황에 따라 한국 치과 의료기관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함께 치과계 고용 시장을 위협하는 불안정한 현실에 직면함에 따라[6],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철저한 진로 준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으로 본다[3]. 이는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치과계 고용시장을 위협하는 실정므로, 아일랜드 치과협회(IDA)에 따르면 COVID 19 장기화와 함께 향후 치과 인력 감축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45%, 직원을 해고할 의향이 있음이 무려 86%로 나타났다[9]. 따라서 앞으로의 불투명한 치과계 취업 현황을 내다보았을 때[6],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진로와 관련한 명확한 목표를 바탕으로 대학 재학 시절부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된다. 이에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관련한 다양한 영향 요인 중 그것과 함께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주목하여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성공적인 진로 준비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2]. 특히, 진로정체감은 진로 결정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로써[10], 진로 결정 수준을 나타내는 선별자료로 활용되어[11], 진로 행동과 관련한 확신을 의미하는 내적 변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함께 진로 결정에 있어 높은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10,12]. 이에 대학생의 진로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매개변인을 제안하는 선행연구를 고찰하였을 때[13-16], 그것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이중 매개효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검증한 연구는 현재까지 보고된 바 없으며, 치위생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역시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과의 관계를 검증한다면 예비 치과위생사들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진로준비행동 방안을 모색하여 진로 결정 및 진로 준비에 필요한 교육 콘텐츠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그것과 진

로정체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진로준비행동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제고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2.1 실증연구모형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고찰을 바탕으로 그릿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Fig. 1과 같은 실증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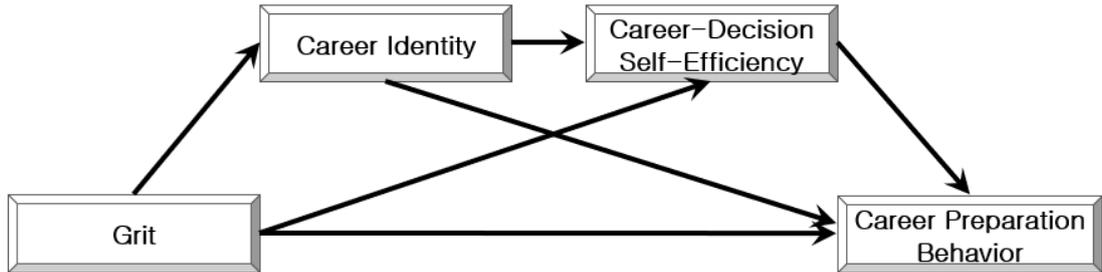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 대상은 B 지역 내 일부 치위생(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 방법을 활용하여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0년 9월부터 12월 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였으며, 연구윤리를 고려하여 설문조사 전 연구 참여를 허락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대상자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Cohen의 Power analysis를 근거로 G*power 3.1.3(Faul, Erdfelder, Lang, & Buchner, 2007)를 이용하며, 유의수준 5%(양측), 검정력 95%, 효과 크기 0.5, 예측변인 수 3의 조건하에 필요한 최소 표본 크기는 119명으로 산출되었다. 하지만, 불성실한 응답 또는 응답거부 등으로 인한 로스률을 고려하여 총 140명에게 설문 조사하였고, 최종 분석에는 125명의 대상자가 포함되었다.

2.3 변수의 정의 및 측정

선행 연구의 고찰을 통해 그릿은 “자신이 설정한 목표에 대해 지속적인 끈기와 열정을 가지는 것”이라 정의하였고[17], 초기의 그릿 측정 도구(Grit-O)와 학업 그릿 척도[17,18]를 참고하여 개발한 이[19]의 그릿 척도의 노력 지속성 8문항, 흥미 일관성 7문항 중 부적절한 3문항을 제외한 문항을 사용한 이[2]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진로정체감은 “자신의 진로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자신의 직업에 있어서 스스로의 능력, 흥미, 목표

등이 확실하고 안정된 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측정은 Holland 등[20]이 개발한 도구를 바탕으로 정[12]의 연구에서 자신의 이해, 직업정보의 이해, 능력 자신감으로 재구성한 18문항 중 12문항을 선택하여 리커트 식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 선택과 적응에 필요한 여러 가지 행동과 관련된 자기효능감 기대의 전체적인 수준”으로 정의하고, 측정은 박[21]의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 중 일반적 효능감 5문항, 사회적 효능감 5문항 중 7문항을 선택하여 리커트 식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종속 변수인 진로준비행동은 “장기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진로에 대하여 준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박[21]의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을 사용하였으며, 진로 탐색 행동 5문항, 정보수집 행동 4문항, 직업 체험 행동 3문항인 총 12문항으로 리커트 식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측정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정을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요인분석은 요인적재값 0.4이상, 요인추출은 주성분 분석을 통해서 실시하였고, 회전방식은 Varimax 회전방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진로정체감 2문항, 진로결정자기효능감 2문항, 그릿 2문항이 타당도 기준에서 벗어나 제거하였으며, 그릿은 노력 지속성, 흥미 일관성 2개의 요인, 진로정체감은 자기 이해, 진로 준비 2개의 요인, 진

로결정자기효능감 1개 요인, 진로준비행동 3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하지만, 모형의 간결성을 위해 변수별 하위영역은 aggregate하여 총 4개의 요인인 그릿,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으로 구성하였다.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내적 일관성 측정에 사용되는 Chronbach's alpha계수를 이용하였으며, 그릿(.829), 진로정체감(.799), 진로결정자기효능감(.847), 진로준비행동(.918)로 모두 .078 이상으로 신뢰도 기준을 충족하였다.

2.4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ver. 26.0 for windows, IMB SPSS Statistics)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분석하였고, 모형 내 주요 변수들 간의 관련성 검정을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모형 내 포함된 변수들의 복잡한 인과관계 분석을 위해서 Bootstrap을 이용한 Hayes's Process Macro로 이중 매개효과를 검정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분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123명(98.4%)이었고, 학년은 1학년이 48명(38.4%), 3학년 44명(35.2%), 4학년 19명(15.2%), 2학년 14명(11.2%)의 순이었다.

3.2 대상자의 그릿, 진로정체감, 진로 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연구대상자의 그릿, 진로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은 Table 2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그릿 평균 점수는 3.57(±0.49)으로 나타났고, 진로정체감은 평균 3.40(±0.50),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평균 3.70(±0.60), 진로준비행동은 평균 3.10(±0.49)로 나타났다.

3.3 모형 내 주요변수들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진로준비행동과 독립변수, 매개변수와의 관련성을 검정하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진로준비행동에 가장 큰 정

(+)의 관련성을 보인 변수는 매개변수인 진로정체감이 고(0.728), 다음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0.566), 그릿(0.251)의 순으로 정(+)의 관련성이 있었다.

Table 1. Distribution of subjects by general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Categories	N	%
Gender	Male	2	1.6
	Female	123	98.4
Grade	1	48	38.4
	2	14	11.2
	3	44	35.2
	4	19	15.2
Total		125	100.0

Table 2. Degree of experiences of traumatic events, intrusive rumination, deliberate rumination, posttraumatic growth

Variables	Min	Max	Mean	SD
Grit	2.29	5.00	3.57	0.49
Career Identity	1.92	4.79	3.40	0.50
Career-Decision Self-Efficiency	1.40	5.00	3.70	0.60
Career Preparation Behavior	1.45	4.67	3.10	0.60

Table 3. Correlation among Grit, Career Identity, Career-Decision Self-Efficien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Variables	Grit	Career Identity	Career-Decision Self-Efficien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Grit	1			
Career Identity	.636**	1		
Career-Decision Self-Efficiency	.435**	.662**	1	
Career Preparation Behavior	.251**	.728**	.566**	1

**p<.01

The data were analyzed by person correlation coefficient.

3.4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중 매개효과)

연구대상자의 그릿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이중 매개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Hayes의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부트스트래핑한 결과는 Fig. 2, Table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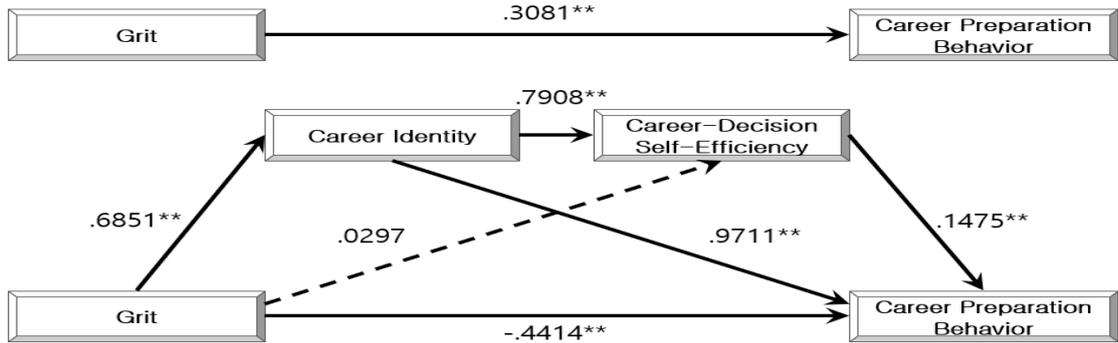


Fig. 2. The Size of the Effect by Path

Table 4. Factors Influenci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Double Mediation effect)

Model	dependent	independent	B	S.E.	t	LLCI1)	ULCI2)
Model 1	Career Identity	constant	0.9705	0.27	3.594**	0.4360	1.5051
		Grit	0.6851	0.0749	9.1479**	0.5368	0.8333
Model 2	Career-Decision Self-Efficiency	constant	0.8439	0.3382	2.4956*	0.1745	1.5133
		Grit	0.0297	0.1156	0.2567	-0.1992	0.2586
		Career Identity	0.7908	0.1074	7.3620**	0.5781	1.0034
Model 3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onstant	0.8014	0.2675	2.9963**	0.2719	1.3309
		Grit	-0.4414	0.0892	-4.9458**	-0.618	-0.2647
		Career Identity	0.9711	0.0996	9.7506**	0.7739	1.1682
		Career-Decision Self-Efficiency	0.1475	0.0698	2.1113**	0.0092	0.2858
Model 4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onstant	1.9815	0.3861	5.1316**	1.2172	2.7458
		Grit	0.3081	0.1071	2.8775**	0.0962	0.5201
Indirect Effect				B	S.E.	LLCI	ULCI
Total Indirect Effect				0.7495	0.0872	0.5875	0.9279
Grit → Career Identity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0.6652	0.0841	0.5061	0.8398
Grit → Career-Decision Self-Efficiency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0.0044	0.0232	-0.0349	0.0593
Grit → Career Identity → Career-Decision Self-Efficiency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0.0799	0.0400	0.0084	0.1636

* $p < .05$, ** $p < .001$

1) LLIC = 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 2) ULIC = 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값

그릿과 진로준비행동 사이에서 매개효과가 성립될 조건은 독립변수인 그릿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그릿의 매개변수인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그리고 독립변수인 그릿과 종속변수인 진로준비행동 사이의 매개변수인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투입하였을 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해야 하는데, 분석 결과의 model 3에서 그릿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부(-)의 영향, 매개변수인 진로정체감

에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p < .01$), 또 다른 매개변수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리고 매개변수인 진로정체감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p < .01$), 진로결정자기효능감도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p < .001$). 비록, 그릿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직접 효과가 없었지만 그릿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인과관계에 있어서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매개변수로 투입되면서 효과(β)

=.3081→-.4414)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

Table 4에서 총 간접효과의 크기는 $\beta = .7495(.5875 \sim .9279)$ 로 신뢰구간 95%에서 “0”의 값이 존재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그릿→진로 정체감→진로준비행동”의 단순 매개 효과 검정결과에서도 $\beta = .6652(.5061 \sim .8398)$ 로 간접효과가 유의하였다. 그러나 “그릿→진로결정자기효능감→진로준비행동”의 매개효과 검정에서는 $\beta = .0044(-.0349 \sim .0593)$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끝으로 이중 매개효과를 검정한 결과, “그릿→진로정체감→진로결정자기효능감→진로준비행동”에서 $\beta = .0799(.0084 \sim .1636)$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ig.2는 <Table 4>의 총 효과, 직접 효과를 경로로 도식화한 것이다.

4. 고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따른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와 함께 향후 대학 졸업생의 취업 전망이 비관적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5,6], 대학 시기에 자신의 진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실행하는 것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22]. 이에 장기적 목표에 대한 노력과 끈기에 해당하는 그릿이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파악됨에 따라[2,8,13-16,22-23],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그릿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이중 매개효과로 검증하여 진로준비행동에 작용하는 다양한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의미 있는 내용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수들의 평균점수를 살펴본 결과 그릿 3.57점, 진로정체감 3.40점, 진로결정자기효능감 3.70점, 진로준비행동 3.10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취업 및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배 등[24]과 이 등[25]의 연구 결과 취업 및 진로 준비와 관련된 항목의 점수가 진로정체감 혹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보다 낮게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이는 치위생(학)과를 졸업한 후 대부분의 학생이 취업이 가능하였기에 진로 혹은 취업 준비에 대한 노력이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되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진로 준비와 관련한 행동 차원의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진로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는 일회성의 준비가 아닌 자신에 대한 지속적인 탐색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대학 기간 전체의 연속 선상에서 가

능하므로[26],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진로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27]. 둘째,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종속변수인 진로준비행동에 가장 큰 정(+)의 관련성을 보인 변수는 매개변수인 진로정체감이었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그릿 순으로 정(+)의 관련성이 있었다. 이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그릿과 진로준비행동, 진로정체감과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고하여[2,12-16,20-29], 본 연구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자신의 진로에 대해 명확한 그림을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진로정체감에 대한 수준이 높은 학생이 취업 및 진로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20]. 이에 진로와 관련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대학교육에서의 세심한 조력이 이루어진다면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27]. 마지막으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단순 매개 효과로 검정한 결과, 그릿→진로정체감→진로준비행동의 간접효과가 유의하였으며, 이중 매개효과로 검정한 결과, 그릿→진로정체감→진로결정자기효능감→진로준비행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의 그릿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의 부분 매개효과를 검증한 노[23]의 연구와 예비유아 교사의 그릿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완전 매개효과를 검증한 서 등[29]의 연구 결과가 본 연구와 의미를 같이 하였다. 또한, 진로정체감과 진로준비행동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연구한 임[27]의 연구 결과 진로정체감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통해 진로준비행동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변수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고함에 따라 본 연구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신의 진로에 대해 명확한 그림을 가지고 목표에 대한 확신이 높을 때[20], 진로 결정과 관련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 수준이 증가하고[10], 최종적으로 자신의 진로에 필요한 것을 미리 마련하고 준비하고자 하는 구체적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27]. 결국, 예비 치과위생사의 그릿이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통해

진로준비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학의 장기적인 진로 교육계획이 설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29]. 특히,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일을 찾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지속해나갈 때 흥미가 열정으로 발전하여 그릿이 발달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0,31]. 이에 대학 기간 전반에 걸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진로 교육을 통해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내적 동기인 그릿과 진로정체감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학 1학년 시기부터 개인의 내적 동기를 자극하는 전공 관련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통해 전공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대학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진로 상담 시 진로정체감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저해 요소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명확한 방향성의 체계적인 진로 상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면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진로 준비행동과 관련한 진로 의식 함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일부 지역에 국한하여 조사하였기에 일반화의 한계가 있으며, 진로준비행동과 관련하여 아직 다루지 못한 주요 변인에 대한 다각적이고 통합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함께 취업 시장에 나가게 될 예비 치과위생사의 적극적인 진로준비에 대한 행동 방향을 모색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며, 추후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진로 교육 콘텐츠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진로 준비와 관련된 연구문제 방향에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그릿이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에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내적 동기인 그릿과 진로정체감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진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전공 관련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진로정체감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수준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실제적인 진로지도가 이루어진다면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REFERENCES

- [1] D. E. Felsman & D. L. Blustein. (1999). The role of peer relatedness in late adolescent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4(2), 279-295.
DOI : 10.1006/jvbe.1998.1664
- [2] H. J. Lee. (2019).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social support on employability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gri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Doctoral dissertation. Kyungsoong University, Busan.
- [3] <http://meta.narastat.kr/metascv/svc/SvcMetaDcDtaPopup.do?orgId=334&confmNo=920024&kosisYn=Y>
- [4] https://www.jobkorea.co.kr/goodjob/tip/view?News_No=15541
- [5]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04/2020100400372.html
- [6] G. Y. Lee & J. E. Jeon. (2020). Factors affecting COVID-19 economic loss to dental institutions : application of multilevel analysis. *The Korean Dental Association*, 58(10), 627-638.
- [7] <https://brunch.co.kr/@yooncohg/276>
- [8] Y. K. Kim. (2019). *The effect of undergraduates' grit on the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aster's thesis. Dongshin University, Jeonnam.
- [9] <https://www.dentist.ie/latest-news/sur-vey-of-dentists-highlights-dramatic-impact-of-covid-19-on-patients-oral-health-and-on-livelihood-of-dentists.8341.html>
- [10] G. Hackett & N. E. Betz. (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3), 326-339.
DOI : 10.1016/0001-8791(81)90019-1
- [11] B. W. Kim & K. H. Kim. (1997).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9(1), 311-333.
- [12] B. A. Jung. (2012). *The effect of H-CIP career group counseling on university student's career identity, career decision level and job-seeking anxiety*. Doctoral dissertation. Donga University, Busan.
- [13] Y. A. Cho & J. E. Jeong. (2017). A Meta-analysis of undergraduate studen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psychological variables related to career development. *Korean Journal Of*

-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30(3), 131-152.
- [14] J. C. Lee. (2013). Theoretical study and comparison analysis of research results on the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f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3(1), 49-66.
- [15] M. H. Kang, S. H. Yoon, D. H. Kim & D. H. Ryoo. (2016).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social support, career motivation, academic persistence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atural science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9(2), 27-47.
- [16] Y. S. Ro. (2016). *The effects of high school students' gri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their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aster's thesis. Yeonse University, Seoul.
- [17] Duckworth A. L. & Quinn P. D. (200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hort Grit Scale(Gri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1(2), 166-174.
DOI : 10.1080/00223890802634290
- [18] J. P. R. Rojas, A. Joseph, E. L. Usher & M. D. Toland. (2012).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academic grit scale*. Lexington: University of Kentucky.
- [19] J. I. Lee. (2016).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employability and mediating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20] J. J. Holland, D. C. Gottfredson & P. G. Power (1980). Some diagnostic scales for research in decision making and personality: identity, information, and barri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6), 1191-1200.
DOI : 10.1037/h0077731
- [21] K. H. Park. (2019). *Testing a predictive model of university arts students' eating behaviors using the exposure to mass media*. Doctoral dissert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 [22] M. J. Kim. (2011). *The effects of career identity, career decision-making types, and career decision levels of college student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aster's thesis. Yongnam University, Kyongbuk.
- [23] H. R. Roh. (2019). *The mediated effect of the passion of the pres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Sangji University, Kangwon.
- [24] S. S. Bae, S. J. Mun & H. J. Noh. (2014). Influencing factors up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in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8), 49-66.
DOI : 10.14400/JDC.2014.12.8.439
- [25] S. J. Lee & Y. J. Lee. (2012).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n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K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3(2), 27-32.
DOI : 10.15207/JKCS.2012.3.2.027
- [26] M. S. Cho & K. S. Choi. (2007). A model testing on ego-identity,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career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late adolescenc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8(3), 1085-1099.
- [27] D. S. Yim & Y. S. Yang. (2016). The influence of career identity on gifted students and general studen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mediating effects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the Gifted and Talented*, 15(2), 169-184.
DOI : 10.17839/jksgt.2016.15.2.169
- [28] D. S. Park. (2017). The effect of career identit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college students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2), 359-367.
DOI : 10.14400/JDC.2017.15.12.359
- [29] E. J. Seo & J. J. Youn. (2019).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in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17), 1195-1210.
DOI : 10.22251/jlcci.2019.19.17.1195
- [30] Duckworth, A. (2016). *Grit: The Power of Passion and Perseverance* New York. NY: Simon and Schuster.
- [31] J. H. Ji & S. E. Heo. (2019). The effects of work value and major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e students o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9(6), 183-193.
DOI : 10.22156/CS4SMB.2019.9.6.183

지 재 훈(Jae Hoon Ji)

[정회원]



- 2005년 8월 :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보건학석사)
- 2010년 2월 :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보건학박사)
- 2012년 3월 ~ 2020년 2월 : 동의과학대학교 의무행정과 교수

- 2020년 3월 ~ 현재 :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 관심분야 : 보건통계, 보건정보, 병원경영, 빅데이터
- E-Mail : infohun@hanmail.net

허성은(Seong Eun Heo)

[정회원]



- 2010년 8월 :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병원경영학과(보건학석사)
- 2015년 2월 : 인제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보건학박사)
- 2011년 8월 ~ 2014년 12월 : 동주대학교 치위생과 겸임 교수

- 2015년 2월~현재 : 신라대학교 치위생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임상치위생학, 치위생 융합 연구
- E-Mail : js1424@silla.ac.kr